

# ICT산업

## 2023년 2분기 동향

- I. 반도체
- II. 디스플레이
- III. 휴대폰
- IV. 시사점

### 작성

선임연구원 이미혜 (6252-3608)





## < 요약 >

**(반도체) 2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2.5% 감소, 전분기 대비 14.2% 성장했으며 1분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**

- (세계시장)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5.3%, 전분기 대비 20.4% 감소한 114.3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8.5% 감소, 전분기 대비 7.4% 증가한 93.4억 달러 기록
-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은 IT기기 수요둔화, 수요기업의 재고조정,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- (가격) 2분기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58.4%, 전분기 대비 22.5% 하락한 1.40달러,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9.8%, 전분기 대비 6.1% 하락한 3.82달러를 기록
- (수출)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% 감소한 226억 달러 기록, 4분기 연속 역성장

**(디스플레이) 디스플레이 시장은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2분기에는 하락폭이 0.2%로 축소되면서 3분기 업황 개선 전망**

- (세계시장) LC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 $\Delta$ 1.3%, OLE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% 성장
- OLED 시장은 TV 패널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의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2% 성장
- (가격) LCD TV 패널 가격은 2022년 3분기부터 반등했으며 2분기에도 상승세 지속, OLE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팹 가동률 조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.5% 상승
- (수출)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% 감소한 43.6억 달러를 기록,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
**(휴대폰) 스마트폰 출하량은 인플레이션,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.8% 감소한 2.7억 대를 기록**

- (세계시장)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- (시장점유율)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폰 선호도 증가 등으로 중국기업의 추격에도 Top 2를 유지
- (수출)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%, 전분기 대비 23% 감소한 25억 달러 기록



### 반도체산업은 점진적 업황 회복이 예상되며 2024년에 업황이 반등할 전망

- 반도체 업황은 IT기기 수요 약세, 재고조정,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2024년에 반등할 전망
  -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은 전년 대비 1.1% 감소에서 3.2% 감소로 수정되었으며 최근 주요 시장조사기관들은 전년 대비 5~6% 역성장을 예상
  - 2023년 서버 출하량은 생성형AI 열풍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.9% 감소할 전망
  - D램 시장은 하반기부터 회복이 예상되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2023년 조정 후 2024년에 고성장 기대
- \* 메모리반도체 성장률 전망(%): [D램]('23)△43 → ('24)31, [낸드]('23)△27 → ('24)23(옵티마)

### 디스플레이산업은 한국의 OLED 주도권 수성을 위해 기술보호, 국내기업간 협력 강화 전망

-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에 특허침해조사 신청서 제출, 2023년 6월 미국 법원에 BOE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
- 삼성전자는 패널 공급사에서 BOE를 제외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구매 개시하여 국내기업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
-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BOE 전면 배제를 추진, BOE 매출중 삼성전자 비중은 10~20%로 추정
-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 시장 확대, 삼성디스플레이의 제한적 대형 OLED 생산능력 보완 등을 위해 LG디스플레이의 OLED TV용 패널 구매 개시

### 프리미엄폰 선호 트렌드는 개발도상국 스마트폰 업셀링(Upselling)으로 이어져 경제불확실성 개선시 스마트폰 출하량 및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를 견인할 전망

- 경제불확실성 개선되는 2024년에는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단축되고 개도국의 5G폰 보급 확대, 프리미엄폰 선호 등으로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
- 프리미엄폰 선호로 2023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애플에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되나 중국의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등으로 삼성전자가 1위 유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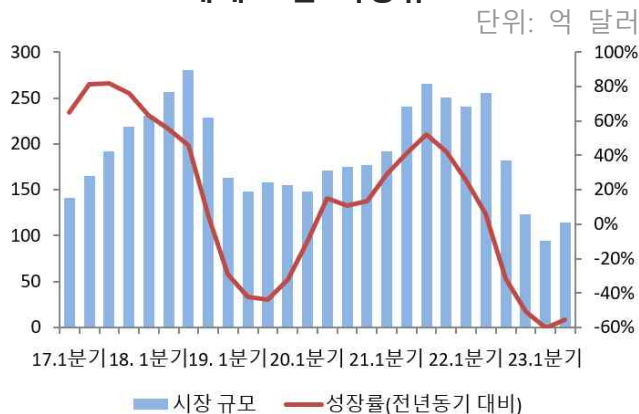


## I. 반도체

**(세계시장) 2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2.5% 감소, 전분기 대비 14.2% 성장했으며 1분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**

- 2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5.3%, 전분기 대비 20.4% 감소한 114.3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8.5% 감소, 전분기 대비 7.4% 증가한 93.4억 달러 기록
-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은 IT기기 수요둔화, 수요기업의 재고조정,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  - PC 출하량은 가격 할인 등으로 재고 감소, 판매량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나 크롬북과 저사양 노트북 교체 수요 중심으로 판매량이 개선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
    - \* PC 출하량 증감률(전년동기 대비, %): (22.4분기)△28.5% → (23.1분기)△30.0% → (2분기)△16.6% (가트너)
  - 스마트폰 출하량은 인플레이션,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.8% 감소
  -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클라우드 기업의 보수적 투자 기조와 높은 메모리반도체 재고수준, 중국 클라우드 기업의 주문 감소, 범용 서버 주문 감소 등으로 회복되지 못함
- 생성형 AI 열풍은 AI 서버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고부가 D램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낸드플래시는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어 AI 서버 투자 확대 영향은 D램 대비 제한적
  - D램 시장은 전분기 대비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으나 2분기에는 고대역폭메모리(HBM)<sup>1)</sup>, DDR5(Double Data Rate 5)<sup>2)</sup> 등의 수요 증가로 성장세로 전환
  - 기업용 SSD(eSSD)<sup>3)</sup> 시장규모는 전분기 대비 24.9% 감소

세계 D램 시장규모



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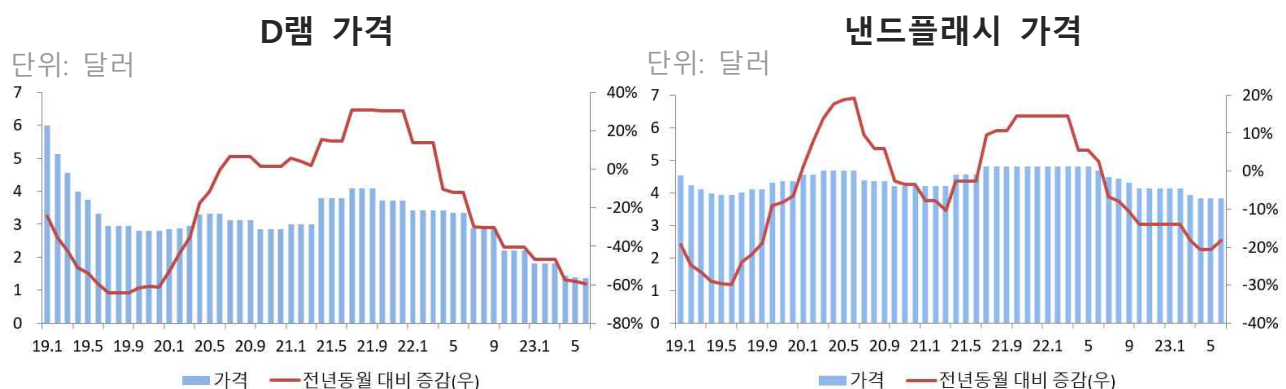
자료: 트렌드포스.

1) High-Bandwidth Memory로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하고 TSV(Through Silicon Via, 실리콘관통전극)으로 빠른 전송속도 제공. D램 시장에서 HBM 점유율은 1% 수준이나 일반 서버용 D램보다 가격이 5배 이상 높음  
2) DDR5는 DDR4 대비 고속(2x), 저전력 등의 장점을 보유  
3) Enterprise SSD(Solid State Drive)로 낸드플래시가 핵심 부품



## (가격)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주요 기업의 감산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축소되는 추세

- 2분기 D램 가격\*은 전년동기 대비 58.4%, 전분기 대비 22.5% 하락한 1.40달러, 낸드플래시 가격\*은 전년동기 대비 19.8%, 전분기 대비 6.1% 하락한 3.82달러를 기록
  - \*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(PC용)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(메모리카드/USB용) 기준
- 반도체 수요기업은 '22년 상반기에 공급망 붕괴 우려 등으로 반도체 재고를 축적했으나 하반기부터 IT기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 소진에 주력
- 2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D램 팹 가동률은 74~82%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요 부진 등으로 D램 가격은 4월과 6월에 2차례 하락
- 3분기 D램 가격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나 하락폭은 축소될 전망
  - 경제불확실성,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구매자들의 보수적 반도체 구매가 지속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 약세가 지속될 전망
  -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부터 감산, 삼성전자는 4월에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으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재고가 감축되지 못하자 양사는 7월에 추가 감산을 발표
  -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의 5~10% 추가 감산 추진, 마이크론은 감산 기조를 2024년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힘
  - \*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: ('22.4분기)15.6조원 → ('23.1분기)17.2조원 → (2분기)16.4조원
  - \* 삼성전자 DS부문 재고자산: ('22.4분기)29.1조원 → ('23.1분기)31.9조원 → (2분기)33.7조원
- 7~8월 D램 평균 가격은 2분기 대비 6% 하락, 낸드플래시 평균 가격은 2분기 수준을 유지



주: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(PC용)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(메모리카드/USB용) 고정거래 가격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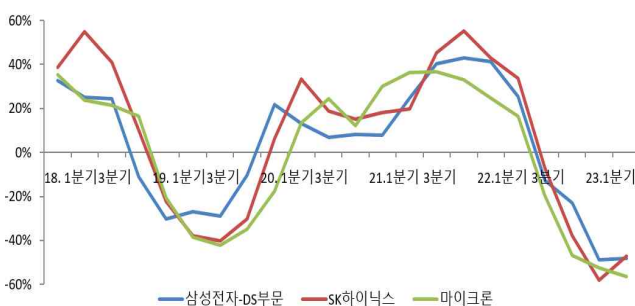
자료: 트렌드포스.



## (기업)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업황 악화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개선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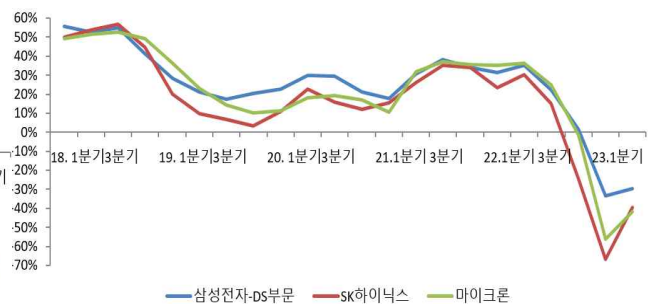
-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7% 이상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약 50%대 감소
- 삼성전자의 DS부문<sup>4)</sup>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8% 감소, 전분기 대비 7.3% 증가한 14.7조원을 기록
  - 메모리반도체 매출(매출 비중 61%)은 전년동기 대비 57% 감소, 전분기 대비 0.6% 증가한 9.0조원을 기록
  -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시스템반도체 수요 부진,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% 감소한 5.8조원을 기록
-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7% 감소, 전분기 대비 44% 증가한 7.3조원
  - D램 매출(매출 비중 62%)은 전년동기 대비 49% 감소, 전분기 대비 53% 증가한 4.5조원,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2% 감소, 전분기 대비 31% 증가한 2.2조원을 기록
  - \* D램은 엔비디아에 고부가 HBM 등을 공급하면서 전분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
-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가격하락 등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반도체 재고 평가손실 등으로 손실폭은 개선
  - 삼성전자 DS부문은 2분기 연속 4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반도체 재고평가손실 감소 등으로 손실폭은 전분기 대비 2,100억원 감소한 4.4조원, 영업이익률은 △30%를 기록
  -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3분기 연속 영업손실 기록했으나 개선 추세, 영업이익률 △39% 기록
  - \* 영업손실 : ('22.4분기)1.9조원 → ('23.1분기)3.4조원 → (2분기)2.9조원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: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 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4) Device Solution. 반도체사업을 포함



## (수출) 2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% 감소한 226억 달러 기록, 4분기 연속 역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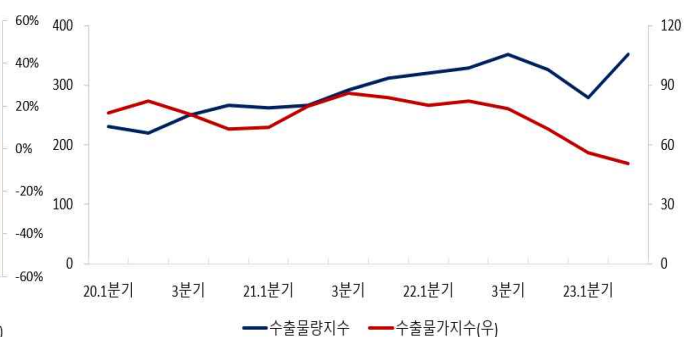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8% 감소한 111억 달러를 기록, 4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나 수출감소폭은 전분기 대비 축소
  - \* 메모리반도체 수출증감률(전년동기 대비, %): ('22.4분기)△44.6 → ('23.1분기)△51.2 → (2분기)△48.2
- 메모리반도체 수출중량은 전년동기 대비 5.8% 감소했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 영향이 커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 감소
-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% 감소한 115억 달러를 기록, 2분기 연속 역성장
  -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3분기 연속 메모리반도체 수출을 뛰어넘음
-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3%,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% 감소
  - 대중국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43%, 시스템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8% 감소하면서 128억 달러를 기록
  - 베트남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45%, 시스템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20% 감소하면서 27억 달러를 기록
- 반도체 수출물가 지수(2015=100)는 2022년 3분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, 반도체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상승세로 전환
  -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7% 상승했으나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2022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으며 하락폭 확대
  - \* 수출물량지수: ('22.2분기)329 → (3분기)352 → (4분기)327 → ('23.1분기)279 → (2분기)353
  - \* 수출물가지수: ('22.2분기)82 → (3분기)78 → (4분기)68 → ('23.1분기)56 → (2분기)51

반도체 수출액 추이

단위: 억 달러



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



## II. 디스플레이

**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하락폭이 0.2%로 축소되면서 3분기에는 업황 개선 전망**

- (LCD) LCD 시장은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했으나, 2분기에는 TV 패널 수요 개선, LCD 가격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.3% 감소에 그침
- 대형 LCD 시장은 중국 TV 제조사의 패널 구매 확대, TV 패널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IT용 패널 가격 정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% 감소
- 중국 TV 제조사는 중국 상반기 최대 온라인쇼핑 행사인 618 등에 대비하여 패널 구매를 확대하면서 LCD TV 패널 출하량 감소폭 축소, 한국 TV 제조사는 패널 구매에 보수적 태도 견지
  - \* LCD TV 패널 출하량 증감률(전년동기 대비): ('23.1분기)△13.7% → (2분기)△1.2%
- 중 소형 LCD 패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
- (OLED) OLED 시장은 TV 패널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의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2% 성장
-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(매출비중 77%)은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2%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% 성장
- TV용 패널 시장(매출비중 9%)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%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9% 역성장,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 지속
- 모니터용 OLED 패널 시장은 게임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39%, 태블릿용 패널과 노트북용 패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%, 14% 성장

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

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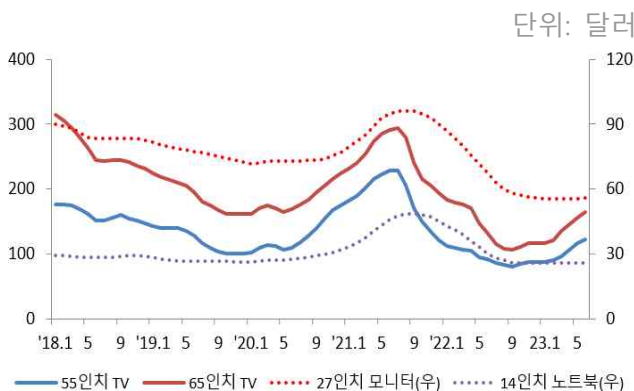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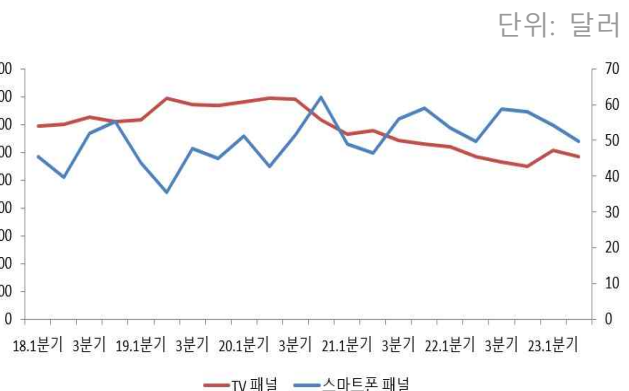
## (가격) LCD TV 패널 가격은 2022년 3분기부터 반등했으며 2분기에도 상승세 지속, OLE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팍 가동률 조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.5% 상승

- (LCD) LCD TV 패널 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주요 기업의 공장 가동률 조정으로 반등했으며 2023년 1분기에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면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25% 이상 상승
- LCD TV 패널 가격은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2021년 여름부터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2022년 9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중
- LCD TV 패널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IT용 패널(노트북, 모니터 등) 가격은 보합세
- 55인치와 65인치 UHD(Ultra High Definition, 4K 해상도) TV 패널 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26%, 25% 상승한 115달러와 156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%, 4% 상승
- 주요 기업은 TV 패널 수주에 생산하는 전략(Production to order)을 통해 팍 가동률을 조정, 우리기업은 국내 LCD TV 패널 생산 중단<sup>5)</sup> 및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생산량을 50% 수준으로 축소 운영중
- 3분기 LCD TV 패널 가격은 공장 가동률 조정, TV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상승세 지속 예상
- (OLED) OLED TV와 스마트폰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분기 대비 각각 4%, 8% 하락
- OLED TV 패널 가격은 2020년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팍 가동률 조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.5% 상승으로 전환
- \* OLED TV 팍 가동률 : ('23.4)44% → (5)48%→ (6)55%
- 모바일용 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% 상승

LCD 패널 가격



OLED 패널 평균 판매가격

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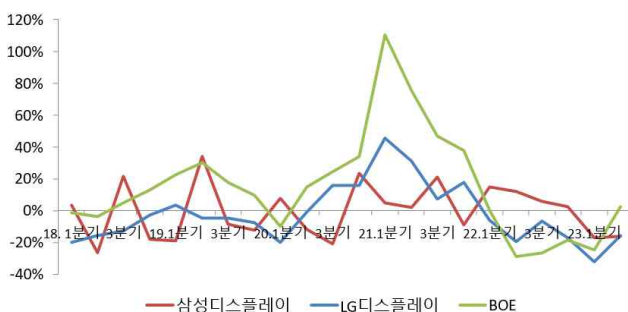
5)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6월에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종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기계약된 TV 패널을 출하하고 12월에는 LCD사업 전면 철수.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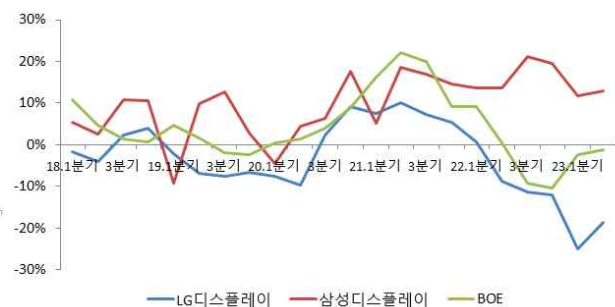
## (기업) 2분기 주요 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되었으나 수익성은 사업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차별화 지속

- (삼성디스플레이) 2분기 매출은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약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% 감소한 6.5조원을 기록
  - 매출과 영업이익은 스마트폰용 OLED 수요 감소, QD OLED<sup>6)</sup>의 낮은 수익성 등으로 각각 16%, 21% 감소
  -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 관련 '21년 11월말부터 QD OLED 양산을 시작했으며, 수율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생산능력(150만대/년), 높은 원가, 낮은 가격 등으로 수익성이 낮음
    - \* 삼성디스플레이의 QD OLED 패널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대비 제조원가가 1.5배 높으나 판매가격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 (65인치 패널 기준)
    - \* QD OLED는 55/65/77인치 패널을 생산중이며 고가의 77인치 물량 확대를 추진
  -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1% 감소한 0.8조원을 기록했으나 고부가 패널 판매 등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(13%)을 유지
  - 아이폰14는 아이폰14, 아이폰14 Plus, 아이폰14 Pro, 아이폰14 Pro Max로 구성되며 고가 Pro 모델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
  - 2분기 폴더블폰 패널 출하량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 63%, BOE 25% (DSCC)
- (LG디스플레이)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5% 감소한 4.7조원을 기록
  - 매출(OLED 비중 42%)은 TV 및 IT제품 수요 부진, LCD TV 패널 사업 축소<sup>7)</sup>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%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7% 증가
  - LG디스플레이는 5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, 2020년 3분기에 흑자전환한 이후 2022년 2분기에 8분기만에 손실로 전환된 이후 손실 지속
    - \* 영업손실(조원) : ('22.2분기)0.5 → (3분기)0.8 → (4분기)0.9 → ('23.1분기)1.1 → (2분기)0.9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.  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.

6) LG디스플레이는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WOLED(White OLED), 삼성디스플레이는 청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쿼터닷(양자점) 컬러필터를 적용한 QD OLED 방식  
7) 2022년말 국내 LCD TV 팹 생산 종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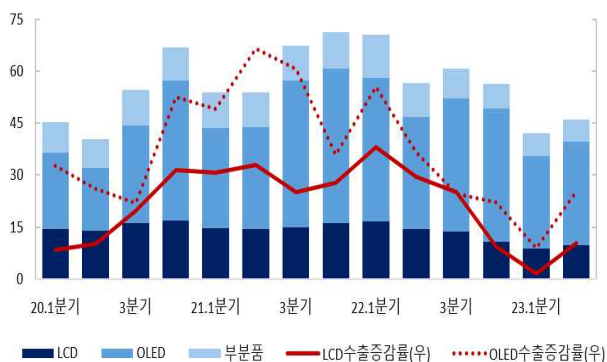


## (수출)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% 감소한 43.6억 달러를 기록,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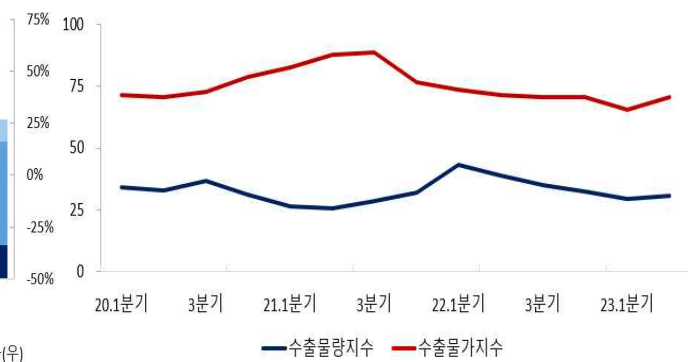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.7% 감소한 30억 달러,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3% 감소한 9.7억 달러를 기록
  - OLED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둔화, 중국의 스마트폰용 패널 저가 공세 등으로 감소
  - LCD 수출은 국내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
- 태베트남 수출은 1.4% 증가했으나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43.7% 감소
  - 베트남 수출(수출비중 65%)은 한국기업의 휴대폰·TV 해외 생산기지로 OLED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했으나 LCD 수출이 45% 감소하면서 26억 달러를 기록
  - 중국 수출(수출비중 25%)은 스마트폰 수요둔화 등으로 OLED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7%, LCD 수출은 34% 감소하면서 10억 달러를 기록
-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와 수출물량 지수(2015=100)는 반등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각각 1%, 21% 낮은 수준을 기록
  -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는 2021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2분기에는 LCD TV 패널 수출물가회복 등으로 전분기 대비 7% 상승
  - \*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: ('22.2분기)71.3 → (3분기)70.8 → (4분기)70.6 → ('23.1분기)65.7 → (2분기)70.6
  -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는 2022년 1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 지속했으나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로는 5% 상승
  - \*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: ('22.2분기)38.7 → (3분기)35.0 → (4분기)32.4 → ('23.1분기)29.3 → (2분기)30.6

디스플레이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 부품품은 편광판, BLU 등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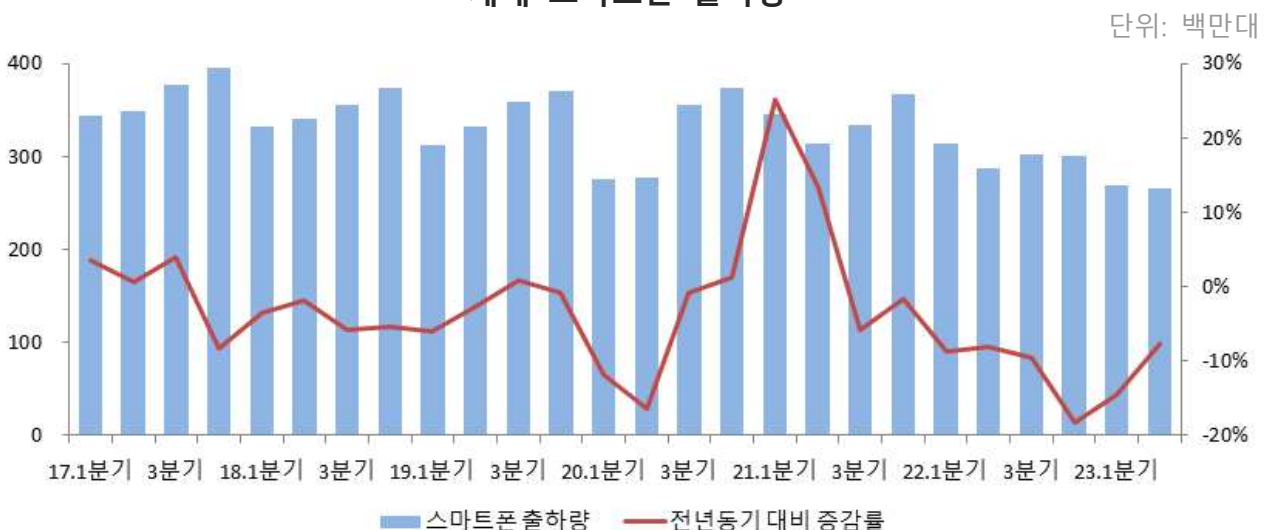


### Ⅲ. 휴대폰

#### 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인플레이션,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.8% 감소한 2.7억 대를 기록

-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  -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리오프닝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2.1% 감소한 65.7백만 대를 기록,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역성장한 이후 2분기에는 감소폭 축소
    - \*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(전년동기 대비): ('22.1분기)△14% → (3분기)△12% → ('23.1분기)△12%
  -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% 감소한 33.7백만대를 기록,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감소폭은 축소되는 추세
    - \*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(전년동기 대비): ('22.4분기)△27% → ('23.1분기)△16% → (2분기)△3%
  - 미국과 유럽·중동·아프리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.1%, 3.1% 감소
-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스마트폰 가격 상승 등으로 길어지고 있으며, 시장 양극화 등으로 프리미엄폰 시장의 성장 지속
  - \* 프리미엄 스마트폰(500달러 이상) 비중: ('21) 25% → ('22)27% → ('23.1분기)31% (캐널리스)
  - \* 인도의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75%, 500~600달러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4% 증가했으나 200달러 미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% 감소

세계 스마트폰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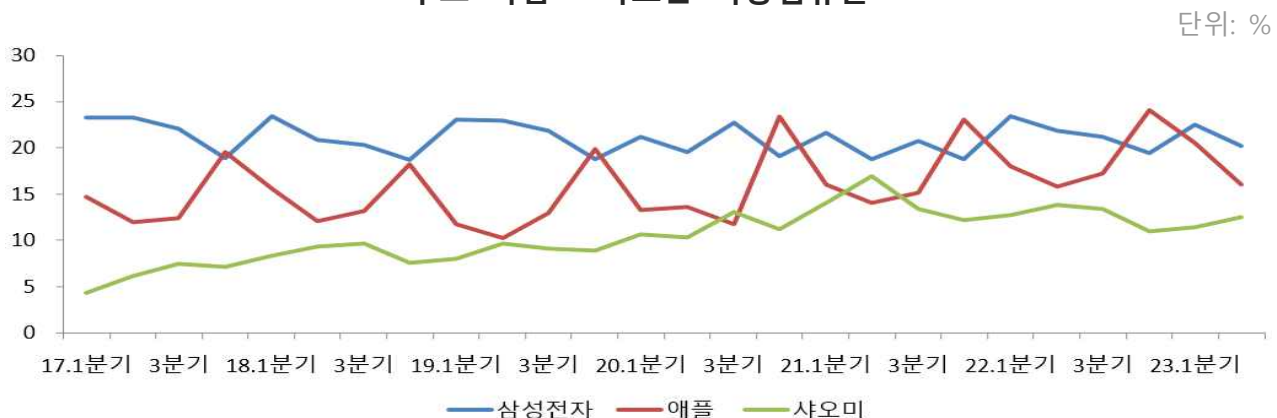
자료: IDC.



## (시장점유율)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폰 선호도 증가 등으로 중국기업의 추격에도 Top 2를 유지

-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5.2% 감소, 시장점유율은 20.2%를 기록
  -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월에 출시된 갤럭시S23의 출시 효과 감소, 중저가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.2% 감소
  - 인도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2분기에는 중국 Vivo가 1위로 도약(시장점유율 16.0%)하면서 순위가 한단계 하락했으며 시장점유율은 15.7%를 기록
  -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% 수준이나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점유율은 1분기 기준 26%로 1위를 기록하며 중국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
-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스마트폰 Top 3 기업중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폭( $\Delta 6.3\%$ )이 가장 낮았으며 시장점유율은 16.0%를 기록
  - 아이폰 출하량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, 인도 등에서 선전하면서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
  - 아이폰의 중국과 인도 출하량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6%, 61% 증가하면서 아이폰의 Top 5 시장은 중국, 미국, 일본, 영국, 인도로 변화
-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프리미엄폰 선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.0% 감소, 시장점유율은 12.5%를 기록
  - 샤오미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.5% 하락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 $\Delta 2.1\%$ )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
  - 인도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9% 감소하면서 판매량 순위는 5위를 기록

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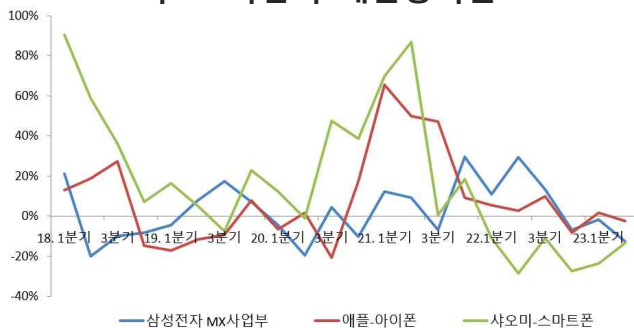
주: 출하량 기준.  
자료: IDC.



## (매출·수익성) Top 3 기업중 애플만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, 수익성은 평균 판매가격 상승,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3사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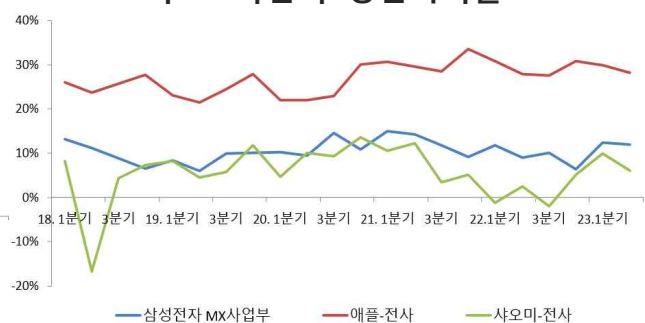
- 삼성전자 MX/네트워크사업부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.9% 감소, 영업이익은 개발·제조·물류 등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.0% 증가
  -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으나 영업이익은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기반한 개발·제조·물류 등 프로세스 전반의 최적화와 효율화 등으로 증가된 영업이익률 12% 기록
  - 애플의 2분기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.4%, 전사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0.3% 감소
  - 아이폰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, 강달러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<sup>8)</sup> 등에도 불구하고 고가 모델인 아이폰14 프로 모델의 판매 호조 등으로 매출은 소폭 감소에 그침
  - 아이폰 중가 모델인 아이폰SE 3세대가 2022년 3월 출시되어 2022년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었으나 2023년에는 아이폰SE 신모델 미출시
  - 애플의 전사 영업이익률은 프리미엄폰 시장의 높은 지배력과 서비스 사업(애플 뮤직 등) 등으로 28%를 기록
  - 샤오미의 2분기 스마트폰 매출은 프리미엄화 전략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하량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.4% 감소, 전사 영업이익률은 6%를 기록
  -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내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.8% 증가한 1,112위안(20.3만원)을 기록
- \* 중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4% 증가하면서 중저가폰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시장 확대 지속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: 애플과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.  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8) 아이폰14는 아이폰13과 동일 가격이나 강달러로 다수 국가에서 가격이 상승





## (수출) 2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%, 전분기 대비 23% 감소한 25억 달러 기록

-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9%, 완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9% 감소
  - 부분품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16억 달러를 기록
  - 완제품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위축, 삼성전자의 OEM/ODM 생산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% 감소하면서 9억 달러를 기록
  - \*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(46.0%), 독일(11.0%), 영국(8.5%) 순
- 미국 수출은 견조했으나 대중국(홍콩 포함),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
  - 대중국 수출은 완제품은 중국 스마트폰기업의 성장, 부분품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% 감소한 10.3억 달러를 기록
  - 대미국 수출은 갤럭시 신모델 출시 등으로 완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3% 증가한 3.7억 달러를 기록
  - 대베트남 수출은 우리기업의 스마트폰 생산기지의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부분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% 감소한 3.6억 달러를 기록
- 휴대폰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7% 감소, 전분기 대비 7% 증가,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%, 전분기 대비 4% 증가
  - \* 수출물량지수: ('22.2분기)92 → (3분기)101 → (4분기)105 → ('23.1분기)80 → (2분기)85
  - \* 수출물가지수: ('22.2분기)80 → (3분기)80 → (4분기)79 → ('23.1분기)73 → (2분기)76

휴대폰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



## IV. 시사점

### 반도체산업은 주요 기업의 추가 감산발표 등으로 점진적 업황 회복이 예상되며 2024년에 업황이 반등할 전망

- IT기기 수요 약세, 재고조정, 중국 경제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반도체 업황은 2024년이나 반등할 전망
-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은 전년 대비 1.1% 감소에서 3.2% 감소로 수정되었으며 최근 주요 시장조사기관들은 전년 대비 5~6% 역성장을 예상<sup>9)</sup>
  - \*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전망: ('23.2)△1.1% → ('23.6)△3.2% (IDC)
- 2023년 서버 출하량은 생성형AI 열풍 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투자가 제약되면서 전년 대비 5.9% 감소할 전망
  - \* 2023년 서버 출하량 증가율 전망: ('23.3)1.3% → (5)△2.9% → (8)△5.9%(트렌드포스)
- AI서버는 총 서버 출하량의 10% 미만으로 작아 서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국의 서버 투자는 미국의 제재<sup>10)</sup>, 중국 경기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
- D램은 하반기부터 회복이 예상되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2023년 조정 후 2024년에 고성장 기대
  - \* D램 시장 전분기 대비 성장률(%): ('23.2분기)3.7 → (3분기)13.3 → (4분기)11.2 (옴디아)
  - \* 메모리반도체 성장률 전망(전년 대비, %): [D램] ('23)△43 → ('24)31, [낸드]('23)△27 → ('24)23

### 디스플레이산업은 한국의 OLED 주도권 수성을 위해 기술보호 강화, 국내기업간 협력 추진

-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부터 상표등록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2022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에 특허침해조사 신청서를 제출
- 2022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자사 특허를 침해한 패널을 미국 스마트폰 사설 수리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조사 신청서 제출
  - \*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수입 조사로 수입 상품의 특허 침해 및 상표권 침해 주장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을 다루며 위반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할 수 있음
- BOE는 5월에 중국 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제기

9) 카운터포인트 △6%, 옴디아 △5%

10) 첨단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 규제 등을 시행

-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2023년 6월 미국 법원에 BOE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
- 삼성전자는 패널 공급사에서 BOE를 제외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구매 개시
-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공급망(스마트폰·TV)에서 BOE 전면 배제를 추진하며, BOE 매출중 삼성전자 비중은 10~20%로 추정됨
  - 1분기 기준 BOE는 삼성전자 LCD TV 패널의 10.9%를 공급 (옴디아)
-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 시장 확대, 삼성디스플레이의 제한적 대형 OLED 생산능력 보완 등을 위해 LG디스플레이의 OLED TV용 패널 구매 개시
  - 삼성전자의 OLED TV는 55/65/77인치이나 83인치 추가했으며 83인치는 LG디스플레이서 구매
  -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을 구매해왔으나 OLED TV에 대한 양사 논쟁 등으로 OLED용 TV 패널은 최초로 구매 결정
-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와 협력으로 LCD TV 패널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춰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고 LG디스플레이는 매출과 수익성 개선 예상

## 프리미엄폰 선호 트렌드는 개발도상국 스마트폰 업셀링(Upselling)<sup>11)</sup>으로 이어져 경제 불확실성 개선시 스마트폰 출하량 및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를 견인할 전망

- 경제불확실성 개선되는 2024년에는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단축되고 개도국의 5G폰 보급 확대, 프리미엄폰 선호 등으로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
- 프리미엄폰 선호도 증가로 2023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애플에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되나 중국의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등으로 삼성전자가 1위 유지 예상
- 애플은 스마트폰 매출, 수익성 측면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나 출하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고수하면서 세계 2위를 유지
  - \* 2분기 스마트폰 매출중 애플은 45%, 삼성전자는 17%를 창출
- 2023년 상반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 차이는 2022년 상반기 36백만대에서 2023년 상반기 16백만대로 축소되었으며 하반기는 애플이 신제품 출시로 강세를 보여왔음
- 중국은 9월에 아이폰 사용 금지 대상을 중앙정부 공무원에서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으로 확대했으며 미중갈등 심화, 중국 경제 부진 등이 중국내 아이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전망

11) 기존 고객이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게하여 매출을 확대